

법무실무를 위한 변호사의 법률정보 추구행태 탐구*

Exploring the Lawyer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Law Practice

김지현 (Ji-Hyun Kim)**

서은경 (Eun-Gyoung Seo)***

초 록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연구는 전문가 정보추구행태 연구의 하나로서 연구되어왔다. Leckie 등의 모델과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분석되었던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본 연구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험(경력)과 소속 로펌규모 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eckie 등의 모델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또한 선행 연구에서 파악되었던 변수(변호사 경력, 로펌규모 등) 역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늘날 변호사들은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비공식 정보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추구를 보다 선호하며, 전자형태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도 분석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와는 상이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첫 번째 온라인 검색이 실패한 경우에 동료나 선후배를 통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rior studies on the practical lawy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cluding Leckie et al. (1996) model showed that role of the work and nature of the work in attorney's practic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orney'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is study now asks if these prior analyses can be applicable to attorneys' practices nowadays. This study performe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21 practical attorneys in Korea who were grouped by their experience period and the size of law firms. This study concludes that role of the work in Leckie et al. model still affects the attorney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oday and moreover, the attorney's experience and the size of law firms as variables also have made an impact on attorney's behaviors so far. By the way, this study further finds that the attorneys prefer the digital information in online database and formal information like statutes or case laws. These results are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m of the prior studi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ehavior such as meaningful using of the informal information in difficulties with improper information can be kinds of the attorney'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키워드: 변호사, 법률정보, 정보요구, 법률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행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법무실무
practical lawyer, attorney, legal information, information need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legal information database, law practice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사서(jihyunkim@nanet.go.kr)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egseo@hansung.ac.kr)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5년 11월 29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14일

■ 정보관리학회지, 32(4), 55-76,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4.055]

1. 서론

정보요구는 개인의 업무나 일상에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상태에서 비롯되며, 정보추구는 정보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이다. 정보채널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일체의 맥락적 개념과 관련되는데 정보추구행태는 이러한 정보요구에 대한 결과로서 취하는 의식적 행위로 정보이용자가 속한 환경이나 직업유형,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Wilson, 2000).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일상적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는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행해지다가 연구방향이 정보요구자 중심으로 변화하여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요구자의 환경, 역할, 직업 등에 대하여 연구초점이 맞춰지면서 각 분야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게 되었다. 이에 과학자와 공학자 등 특정 주제의 학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으로 이어졌고, 이후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 등에 대한 분석에 이어 점차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Case, 2012). 그 중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법학 주제를 이용하는 그룹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대상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법학도서관 이용자여서 실제 법무실무를 위한 변호사의 정보추구 행태 분석이라 할 수는 없다(김정수, 2010;

김황우, 2012; 주민지, 2013; 김민규, 2013). 국외연구에서는 Leckie, Pettigrew, Sylvain (1996)에 의해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모델이 제시된 후 Otike(1999), Cole & Kuhlthau(2000), Wilkinson(2001), Kuhlthau & Tama(2001), Makri, Blandford, Cox(2008)에 의해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연구 시기가 거의 2000년대 초기로 이를 통해 현재 변호사들의 정보이용 및 추구행태를 제시해준다고 할 수 없다.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을 통하여 법률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 달라졌을 것이다. 즉, 이전에 선호하던 문헌형태의 정보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고 상이한 정보채널(입수경로)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것이며 검색 형태 또한 변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변호사들은 법무실무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급격한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오늘날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파악함으로써, Leckie 등의 모델을 포함하여 기존 연구 결과가 현 시점에도 여전히 적용되는지 또는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정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최근 변호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무실무 관점에서의 업무, 정보요구, 선호하는 정보원, 온라인 검색과정과 데이터베이스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

구조화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력과 소속기관(로펌 등)의 규모를 구분한 정보추구행태 비교를 기반으로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및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개선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법률정보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이용자인 법무실무자들의 정보 이용 만족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김광진(1997)이 가장 먼저 법조인을 대상으로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는 법조인의 전문 분야가 외국법률정보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62명의 법조인(로펌변호사 45명, 판사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상사, 기업 법무 및 금융 분야는 다른 외국 법률정보에 비하여 미국 법률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재분야는 일본 법률정보를, 해상분야는 영국 법률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법과 대륙법계 법률정보 검색 시에는 책자, 온·오프라인데이터베이스, CD-ROM과 마이크로폼 순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법률정보를 검색할 때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후 법률정보 이용자에 대한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 간호사의 정보이용행태(이경아, 1999),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별 탐색행태(한승희, 이지연,

2006), 의사들의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행태(홍기선, 2008; 김나원, 박지홍, 2009) 그리고 경영경제 분야 연구자의 정보추구행태(배은주, 2012) 등의 전문가대상 정보추구행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로스쿨 학생 등 법률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추구행태 분석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김정숙(2010)은 Kuhlthau(2001)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로스쿨 학생의 정보탐색 과정을 연구하였다. 5명의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일기와 면담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수업준비, 과제 해결, 시험 대비에서 어떤 정보탐색을 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과업 착수, 초점 체계화, 정보 수집, 탐구 종료 순으로 정보추구를 진행해가며 수동적인 학습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Kuhlthau 모델의 단계 중 주제 선택이나 탐구 단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김황우(2012)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학위)에 따라서 정보검색 행태 등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11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한 43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학년별로는 정보이용의 중요 요소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성별 및 전공학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성별에 따라 컴퓨터 이용의 정보탐색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별 및 전공학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주민지(2013)도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하였는데, 김황우의 연구와는 다르게 21명(비법학사 출신 9명, 법학사출신 12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

대일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특성(연령, 학부 전공, 컴퓨터 사용능력), 학문(법학)특성 등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맥락과 각각 선호하는 정보채널을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20대는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검색방법을 선호하고 30대는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찾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법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근거가 확실한 권위 있는 자료를 선호한다고 분석하였다. 컴퓨터 사용능력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에는 영향을 주나 정보추구행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민규(2013)는 법원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동기, 정보만족, 이용만족 간 영향을 파악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12곳의 지역 법원도서관 이용자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보이용 동기는 정보 탐색 및 접근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정보내용의 질(質)은 정보만족에, 또 정보만족은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연구와 달리 국외 연구에서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수행되었다. 일반적인 정보추구행태 모델로는 Wilson모델들, Dervin모델, Ellis모델, Kuhlthau(탐색단계과정)모델 등을 들 수 있다(Wilson, 1999). 그 중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제시한 모델은 Leckie 등의 모델이다. Leckie, Pettigrew, Sylvain(1996)은 공학자, 의사·간호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비교분석하여 전문가 그룹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추구과정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문가 정보

추구 모델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꼽았다. Leckie 등은 전문가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업무의 측면, 곧 “역할(role)”을 가지는데, 이 역할이 전문가 정보추구 모델에서의 요인(要因)이라고 보았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정한 ‘역할’ 즉 작성역할(drafting role), 주장역할(advocacy), 협상역할(negotiating), 자문역할(counseling), 행정역할(administrative role)이 구별되어 수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추구행위 형태가 만들어 진다고 보았다. Leckie에 따르면,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는 전문적인 ‘업무 역할’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또한 여러 개인적 요인이나 상황에 따른 변수(變數)들(변호사의 경력, 로펌규모, 교육, 전문 영역 등)도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Otake(1999)는 변호사의 정보요구는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유형에 따른 “업무 성격”(nature of the work)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각 업무 성격이 변호사의 정보요구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정보요구는 정보추구성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변호사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정보채널은 동료나 개인의 접촉으로서 동료로부터의 정보를 대단히 유용하다고 본다고 파악하였고, 그 다음으로 ‘법학저널’과 회의·컨퍼런스·세미나 순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변호사가 정보를 얻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서, 서면 자료나 전자적 매체의 정보보다 먼저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파악하였다. 정보 형태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된 자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존하고, 전자적 매체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Leckie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경험, 로펌 규모 역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Cole과 Kuhlthau(2000)는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의 '경력'(경험)을 중시 여기었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즉 '초임 변호사 그룹'과 7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험 변호사 그룹'을 비교하여, 초임 변호사들은 소송관련 정보를 다룸에 있어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반면,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은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을 서로 연결하여 소송 등의 해결 방안을 조기에 개념화한 후 수집한 정보에 가치를 부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Kuhlthau와 Tama(2001)은 인터뷰 대상인 8명의 변호사가 모두 복잡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서면(書面)형태의 정보를 더 선호한다고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변호사들에게 광범위한 선택을 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특정 사항을 검색하도록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한 번에 대량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정보채널 즉, 일종의 '정보입수경로'에 있어서는 이를 내부 정보, 외부 정보, 사람으로부터의 정보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변호사들은 종료된 사건으로부터 얻어진

내부 문서(internal office files)를 이후 유사한 사건을 다룰 때 참조할 목적으로 보관하며, 외부 정보채널로서의 인터넷은 법률정보보다는 일반 정보에 접근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파악한다고 보았다. '동료' 역시 중요한 정보채널로 언급되었다. Wilkinson(2001)은 변호사들의 '이용정보'에 대한 분석보다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자체를 분석하고자 했다. 변호사들이 법무와 관련하여 접했던 최근 사안들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했던 정보 등에 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소의 규모 즉, 로펌규모를 기준으로 1인 로펌 변호사, 중간 규모 로펌 변호사, 대형 규모 로펌 변호사, 초대형 규모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로 각각 나누어 변호사가 추구하는 약 24개의 정보 유형을 '공식(formal) 정보'와 '비공식(informal) 정보' 그리고 '외부(external) 정보'와 '내부(internal) 정보'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이용 정보로서 내부 정보와 비공식 정보를 각각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고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 간의 선호 여부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형 로펌 변호사의 경우 내부 정보를 더 선호하는 반면, 소형 로펌 변호사의 경우는 외부 정보를 약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변호사 정보추구과정에서의 영향 요인 및 행태

구분 \ 학자	Leckie et al. (1996)	Otike (1999)	Cole & Kuhlthau (2000)	Kuhlthau & Tama (2001)	Wilkinson (2001)
요 인	역할	업무 성격	-	-	-
변 수	경험, 로펌규모	경험, 로펌규모	경험	-	로펌규모
행 태	-	서면형태의존, 비공식커뮤니케이션 선호, 관련자료 보관	-	서면형태선호, 관련자료 보관	비공식커뮤니케이션 선호

변호사가 전자정보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Makri 등(2008)은 Ellis모형을 기반으로 학계 법조인 27명(교수 1명, 강사 4명, 박사과정 학생 및 연구교 3명, 법대 학부생 9명, 법대 대학원생 8명, 실무법학대학원생 2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와 관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계의 법조인들은 주로 몇몇 전자정보자원을 주로 이용하고, 전자정보자원 이용 시 Ellis모형이 제시한 과정과 유사한 정보추구행태 특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즉 정보자원·문헌·내용을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전(前)단계에서는 서베이, 모니터링, 탐색, 브라우징, 이어찾기, 추출 등의 행태가 수행되며 검색·선택·진행하는 후(後) 단계에서는 구분하기, 거르기, 선택, 추출, 갱신, 기록정리, 분석, 편집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업무에서의 “역할”이나 “업무 성격”이 있으며, 그 외 변수로는 변호사의 경험(경력)과 로펌규모 등이 있다. 또한 행태 측면에서는 변호사들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과 서면 정보를 보다 선호하고 전자정보를 가장 선호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파악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가 새로운 정보추구행태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파악되었던 정보추구행태와 조사된 정보추구행태의 비교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의 변

호사 정보추구행태를 새롭게 분석해보고, 나아가 정보이용자인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온라인 법률데이터베이스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의 변호사들이 법무실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관련 선행 연구에서 변수로 파악되었던 경험(경력)과 로펌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 변호사를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다음, 이 중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 변호사는 총 21명으로 인터넷 온라인 환경과 디지털 정보자원에 거부감이 없는 X세대(1965년~1981년생) 40대 전후 연령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소형 로펌(1인 변호사 로펌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변호사를 둔 로펌), 대형 로펌(변호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10대 로펌에 속하는 로펌), 일반회사 사내 법무부서에 소속한 변호사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또한 경력 또한 분산되도록 변호사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1년~5년의 경력을 가진 8명, 6년~10년의 경력을 가진 5명, 11년~15년의 경력을 가진 8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는데 이들은 7명씩 각각 소형 로펌, 대형 로펌, 그리고 일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였다. 한편 선정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중복응답 허용)를 보면, 민사(民事)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11명, 상사(商事)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9명, 형사를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가 5명으로, 민사·상사·형사 세 분야가 가장 일반적인 업무 분야이고, 그 외에 인권 및 행정, 이혼, 지적재산권, 세무, 보험, 노무, 금융, 의료, 건설, 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반구조화된 형식의 설문지 구성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3명의 변호사와의 인터뷰로 작성하였고, 이 설문을 2명의 변호사에게 사전 파일럿 조사를 실시한 후 어휘수정 및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19개 설문조항(개방형 문항 포함)으로 21명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일반사항과 법무실무 유형, 둘째,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업무 및 주로 이용하는 정보 및 정보채널, 그리고 셋째, 선호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

이스(DB), 이용행태 및 검색과정을 조사하였다(〈표 2〉 참조).

그 다음으로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이용 동기’와 같은 맥락적 요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11월 한 달 간 개방형 반구조화 형식으로 행해졌으며, 한 명당 약 1시간~1시간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대면(對面) 인터뷰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은 대형 로펌 변호사 4명, 소형 로펌 변호사 3명 그리고 사내 변호사 3명, 총 10명으로 정하였다. 이중 사내 변호사 3명은 사내 변호사 경험만 있는 변호사 1명, 대형 로펌 경험을 함께 갖춘 사내 변호사 1명, 소형 로펌 경험을 함께 갖춘 사내 변호사 1명으로 구성하였고 따라서 로펌 경험을 함께 갖춘 사내 변호사들은 로펌에서의 경험과 사내 변호사로서의 경험에 대한 비교 응답이 가능했다.

〈표 2〉 설문내용과 질문형태

항 목	설문 내용	질문형태
일반 사항	성별, 연령, 변호사 경력, 주 업무	선택
	전문분야,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업무	복수응답
법률정보추구행태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업무	순위
	정보요구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	순위
	정보, 법률정보들의 주된 입수경로	순위
	주로 이용하는 법률정보의 콘텐츠, 외국법률정보 콘텐츠	순위
법률정보DB 검색	법률정보DB 사용빈도, 평균 DB검색 시간은	선택
	선호하는 법률정보DB	순위
	법률정보DB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순위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주된 방식	순위
	법률정보DB에서의 주된 검색점	순위
	첫 번 검색실패시 그 다음 행위	순위
	법률정보DB에 대한 만족도	선택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불편사항 서술	기술

4.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분석

4.1 변호사의 정보요구와 정보원

4.1.1 업무와 정보요구

본 연구에서 변호사의 주요 업무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가 실무에 있어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는 송무(訟務)에 해당되는 소송·중재·협상과 같은 분쟁해결 업무(이하 '소송')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수행하는 자문 업무(이하 '자문')였고, 그 뒤를 이어 클라이언트와 상담하는 업무(이하 '상담')가 많았다(〈표 3〉 참조).

Leckie, Pettigrew, Sylvain(1996)과 Otake(1999)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변호사의 업무 역할과 업무 성격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속기관 별로 변호사의 업무 역할을 살펴보면, 소송 중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내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인 회사를 대신하여 마치 사건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처럼 사실관계를 직접 수집한 후 회사와 계약한 소송수행 로펌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수집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즉 Leckie, Pettigrew, Sylvain(1996)의 구분에 의하면 '주장 역할'을 주로 한다고 분석된 반면, 로펌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나 사내 변호사로부터 받은 사실관계를 참조하여 소송서류를 작성

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 즉 '자문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업무에 있어서 주장 역할을 하는 사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구하게 되고, 자문 역할을 하는 로펌 변호사는 소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 주어진 역할이 상이하면 상이한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무래도 제가 사내 변호사다보니까 소송 자체는 송무 쪽이 강한 외부로펌이 맡아서 하구요, 저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외부로펌에 제공할 사실관계 정리를 제가 하죠,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는 데도 직원들이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 한 직원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사내 변호사인 제가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리문제보다는 사실관계 입증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관계가 의뢰인이 얘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다를 때 그 입증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웬만하면 사실관계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모두 당사자들에게 받습니다. 결국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서라든가 증거들은 당사자들에게서 수집되기 때문이죠, 사건에 따라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표 3〉 변호사의 주요 업무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소송	자문	자문	자문	소송	소송, 자문	소송
2위	상담	소송	소송	소송	자문, 상담	-	자문
3위	자문	상담	상담	상담	-	상담	상담

업무 성격이 다른 경우 역시 정보요구는 달라진다. 앞서의 소장 작성업무에는 상당 부분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정보를 주로 요구한다면, 사실관계 수집·확인 업무에는 법률정보보다는 실제 각각의 사실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의료소송의 경우는 의료 행위나 의무기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며 영업 비밀에 대한 소송은 영업상 비밀 관리 자체가 이루어졌는지의 사실 파악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Leckie et al.(1996)과 Otike(1999)가 분석한 요인으로서의 '업무'는 오늘날에도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1.2 법무실무 수행 시 이용하는 정보원

변호사가 실무를 수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전체 정보원을 분석하였다. 예상대로 법령과 판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도서, 내부분서, 논문, 전문가조언, 그리고 동향 뉴스 순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참조). 그리고 그 중 다시 변호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률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률정보는 법령(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었다. 그 다음

은 판례(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였고 그 다음으로 법학관련 전문서(교과서 등),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 및 소송 서류, 법학관련 학술 논문, 법학관련 동향 정보·뉴스,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각종 법무 서류 양식(form) 순이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법령과 판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Otike(1999) 등 기존 연구들은 변호사가 가장 선호하는 정보채널이 동료로부터의 정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서면 자료나 전자적 매체의 정보보다도 먼저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오늘날 한국의 변호사들은 동료에게서 얻는 정보인 전문가 조언 즉,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에 대한 이용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보다는 오히려 '공식 정보'(formal information)인 법령·판례에 대한 정보요구가 더 우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변호사들이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요구 및 이용 동기가 전문성 추구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 실무에서 변호사가 이용하는 정보원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법령·판례
2위	전문도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내부분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전문도서
3위	내부분서	논문·저널	내부분서	전문도서	논문·저널	내부분서	내부분서
4위	논문·보고서	내부분서	논문·보고서	논문·보고서	내부분서	논문·보고서	논문·보고서
5위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동향·뉴스	동향·뉴스	동향·뉴스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6위	동향·뉴스	동향·뉴스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전문가조언	동향·뉴스	동향·뉴스

초임 변호사였을 때에는 기본 법학서적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경력이 쌓이게 되면 기본 서적보다는 주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법학분야의 서적을 보고 이해합니다.

초임변호사인 경우는 내가 작성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선배들에게 묻게 되는데 만약 대형로펌의 경우라면 아예 해당 작성서류에 대해 선배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요. 검사나 결제 방식이요. 즉 초임인 경우 자기 작성을 한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선배들의 의견을 듣게 되죠.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 관련 분야가 일반 분야가 아닌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되는 전문 분야의 변호사, 특히나 그런 특화된 분야에서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것이 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게 되죠.

주로 가까운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요새는 경력이 쌓이면서 물어보는 횟수가 많이 없어요. 옛날에 변호사 초반기에는 엄청나게 물어봤죠. 요즘은 전문 분야 소송 경험이 있던 변호사나 전문 분야 경험이 있는 연수원 동기들에게 물어봐요. 서로 경력이 쌓였으니까 전문 분야의 경우에 물어봐요. 제가 평소 많이 안하던 분야는 잘 모르니까 그 전문 분야는 물어보게 되죠.

〈표 4〉에서 보듯, 오늘날 한국의 변호사의 경우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정보채널은 그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초임 변호사 때는 주로 법률 전반적 내용 전체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지만 경험이 쌓인 변호사의 경우는 특정 전문분야, 즉 경험을 갖춘

변호사라도 기존에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문소송 형태 등 관련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쪽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변호사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및 이용 동기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에서 점차 변호사의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력에 따라 변호사의 정보요구가 바뀌어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4.1.3 정보 입수경로

다음으로 변호사의 ‘정보채널’ 즉 ‘정보입수 경로’를 조사하였다. Otike(1999)는 변호사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동료들 통한 정보이고, 오히려 전자적 매체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소속기관 규모 및 경력과 상관없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수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변수 중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도 있는데, 변호사의 경력과 로펌규모가 그것이다. 변호사 경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력 1년에서 6년 사이에 있는 경험이 적은 변호사들은 국내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법률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반해 변호사경력이 6년 이상인 변호사들은 본인이 소장하거나 보관하는 자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변호사 경력이 짧아 개인자료가 잘 축적이 안된 초임 변호사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하여 필요한 법률정보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로펌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형로펌에 소속된

〈표 5〉 변호사 실무관련 전체 정보 입수경로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법률정보DB	법률정보DB	법률정보DB	법률정보DB	법률정보DB	법률정보DB	법률정보DB
2위	외부기관, 본인소장	소속자료실	소속자료실, 인터넷엔진	인터넷엔진	외부기관	본인소장	소속자료실
3위	-	본인소장	-	소속자료실	본인소장	소속자료실	본인소장

변호사는 기관의 내부 자료나 소속자료실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반해 기관내부 자료나 소속자료실 자료가 방대하게 축적되지 못한 소형로펌 변호사의 경우는 외부기관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경력 11년~15년차 변호사들의 법률정보 입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개인 소장 자료라면 첫째는 소송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소송할 때 입수되는 자료들입니다. 직접 수행했던 소송 진행 자료도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자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죠. 예를 들면 주석서라든지 주해서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크해놓은 자료도 있죠. 소송 수행하면서 찾았던 판례라든지. 그리고 법률신문 보면서 스크랩해놓은 자료도 있죠. 관련 사건이나 소송, 자문하면서 찾아놓은 자료 외에도 상대방 소장 자료에서 얻은 자료라든지 사실조회하면서 얻게 되는 자료 등도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 소장하게 되는 자료가 많아지고 그걸 참조하게 됩니다.

교과서, 주석서들도 저는 제가 필요한 자료를 제가 직접 사서 봐요. 나중에 다시 참조하기 위해서 표지를 내놓거든요. 제가 했던 기존 계약서

나 소송 자료도 외장 하드에 각 사건 당사자 이름으로 각각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해요. 제가 만 11년을 했는데요, 경력이 지금쯤 되면 해본 사건이 많아 내 것을 검토하면 거의 다 나와요. 그렇다 보니 사실 요즘은 이런 폴더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렬해야 하는지가 오히려 고민 중이죠.

대형 로펌의 경우는 자료실도 있고 기존 기록을 보존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회사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도서관에 가진 하지만 도서관은 전문적인 도서보다는 일반적인 도서가 많아서 자주 안가게 되고 그냥 로앤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대형 로펌의 문서보관 서버에는 비공개의 각종 계약관련 정보가 많아요.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죠. 금융계약도 각 형태별로 계약서가 많아요.

지회 로펌은 대형 로펌이다 보니 내부 자료실은 도서관처럼 되어 있어 있습니다. 주석서나 교과서 등은 있지만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진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내부 자료실보다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컴퓨터로 찾습니다.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 문서들은 내부 인터넷 망에서 아이디치고 들어가면 어느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했는지와 그 자료들이 다 나오니까요.

이러한 인터뷰에서 보면, 변호사의 경력이 쌓일수록 도서관이나 외부 기관의 자료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구입하여 소장하거나, 본인이 직접 검토하여 작성한 자료 모음을 더 많이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해보면, 변호사의 정보입수경로에서 파악된 첫 번째 행태특성은 오늘날 한국 변호사는 서면 형태의 문헌 정보 이용보다는 인터넷 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정보원(情報源)을 통한 법률정보 입수를 가장 많이 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선호 경향은 변호사의 경력이나 로펌규모 차이에도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상반된 행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내부 정보'(internal information)와 '외부 정보'(external information) 선호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Wilkinson(2001)은 대형 로펌 변호사의 경우 내부 정보를 더 선호하는 반면 소형 로펌 변호사의 경우는 외부 정보를 약간 더 선호한다는 파악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이와 유사한 행태특성이 나타났다. 즉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소형 로펌 변호사들에 비해 기관 내부 자료를 더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정보는 전자자원 형태이고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행태 특성은 경력과 로펌규모와 관계된 것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의 국내 검색엔진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경험이 적은 경력 1년~5년차의 변호사들에게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 경력이 6년 이상인 변호사들은 본인이 소장하거나 보관하는 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행태

4.2.1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

앞서의 분석 결과, 변호사가 주요 업무 즉 소송, 자문, 상담 등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은 정보 요구가 발생하고 이 때 법령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수경로로는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본 연구는 변호사들의 법률정보의 이용행태 파악을 위하여 변호사들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 빈도와 검색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 21명 중 17명의 변호사가 매일 검색한다고 하였다. 평균적으로 '30분 이내' 검색을 한다는 변호사가 10명이었고 '1시간~2시간' 정도 검색을 한다고 답한 변호사가 역시 10명이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4시간' 정도를 검색한다는 변호사가 1명이 있었다.

이러한 전자형태 정보의 선호특징은 변호사 실무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변호사의 업무가 크게 변화했다거나 또는 일정 변수(변호사의 경험, 로펌규모, 전문 분야, 개인적 태도 등)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늘날 디지털 정보환경의 발달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그를 통한 정보자원이 풍부해졌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행태 변화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달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적으로 된 판례집을 뒤지거나 종이 관보와 법령집을 찾을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법률정보 중 한국의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였다. 현재

법률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자원으로는 로앤비(LawnB), 로앤비 이외의 상업용DB,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자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입법지원센터 입법예고, 전자관보 등을 꼽을 수 있다. 21명의 변호사들은 3개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상업용 유료 데이터베이스인 로앤비(<http://www.lawnb.com/>)였고, 다음으로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intsrch/sjo022.do>)가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호는 변호사의 경력, 로펌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표 6〉 참조).

로앤비는 거의 하급심판례를 찾기 위해서 이용해요. 다른 자료의 경우 법률은 법제처 것을 보고요.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죠. 대법원에는 하급심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대충 나와요.

로앤비 자료는 유료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대법원을 이용하죠.

로앤비는 확실히 이용자 중심이라서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 내 재검색은 좀 불편합니다. 대법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판례는 있는데 너무 공개되지 않는 하급심 판례가 많아서 저의 경우는 그다지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법률 조문 확인보다는 연혁 법률과 입법 취지를 볼 때 사용하죠. 입법할 때 해당기관 사내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입법할 때 입법의견을 묻기도 하거든요. 입법의견 낼 때 입법취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유료서비스인 로앤비가 검색 편리함이나 보유 정보자원에 있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동의하였다. 다만 결과 내 재검색과 관련된 기술적 향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 정보추구과정에서의 경제적 측면을 본다면 정부 기관의 무료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역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6〉 변호사가 주로 이용하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대법원	로앤비	법제처	로앤비	대법원	대법원	로앤비
2위	로앤비	법제처	로앤비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3위	법제처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로앤비	-	대법원

4.2.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선택에 있어 서의 중요 요소

전문분야 정보인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할 때, 정보자원으로서의 법률정보와 그 정보원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에 요구하는 속성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속성들을 파악해 본 결과, 변호사들은 '정확성'(accuracy)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정보추구활동을 설명한 Case(2012)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었던 요소이다. 그 다음으로는 최신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표 7> 참조). 이는 1차적 법률정보의 특성이 정확성, 정보 간 연관성, 최신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는데(장지은, 1999), 정보이용자인 변호사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선택 요소에 이들을 그대로 반영시킨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개별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1년~5년의 경력이 짧은 변호사 그룹과 6년~10년 경력의 변호사 그룹은 정보의 최신성과 신뢰성 못지않게 검색편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법률정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법률정보 데이

터베이스가 법률정보의 특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제 정보검색의 용이성이 좀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2.3 정보검색 행태

이번에는 변호사가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법조인의 전자정보원 검색 행태를 관찰한 Ellis와 Makri는 법조인들이 '시작하기에 해당되는 서베이(surveying)', '직접 용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탐색(searching)', '참고자료를 따라가며 찾아보는 이어찾기 방식의 체인잉(chaining)', '정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모니터링(monitering)', '훑어보는 브라우징(browsing)' 등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검색행태 중 변호사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방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한 21명 변호사는 모두 '탐색'(searching)이 가장 주된 검색 행태라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 검색 내용과 관련된 중요단어(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법령명이나 판례번호와 같이 형식화되어 조합된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의 '탐

<표 7>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요소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2위	신뢰성	검색편리성	최신성	최신성	신뢰성	최신성	최신성
3위	최신성	전문성	검색편리성	검색편리성	최신성, 전문성, 검색편리성	전문성	신뢰성
4위	전문성	신뢰성	전문성	전문성	-	신뢰성	검색편리성
5위	검색편의성	최신성	신뢰성	신뢰성	-	검색편리성	전문성

색'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검색 행태는 연결점이 되는 정보를 따라가면서 검색을 이어가는 "체인잉"이었다. 체인잉은 인용이나 자료 간 참고용 연결점 등을 따라가며 검색하는 형태인데 Makri 등(2008)에서도 변호사의 일반적인 검색 행태로 인식된 바 있다. 세 번째 검색 방식은 '브라우징'이었다. 브라우징은 '반(半)지시적(semi-directed) 검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변호사들은 탐색과 체인잉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한 검색 방식으로 브라우징을 꼽았다(〈표 8〉 참조).

한편, 변호사가 법률정보를 탐색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근점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는 중요단어(키워드), 법령명 그리고 판례번호 이 세 가지를 접근점으로 하여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9〉 참조). 법령공포번호 등으로

는 거의 검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편리성 향상을 위해서는 법률정보 접근점 개발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4 검색 실패 후 정보추구행태

변호사들은 온라인 검색 시 첫 번째 검색 결과에서 적합한 또는 요구하던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즉, 첫 번째 검색에서 실패했을 때 그 다음 어떤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Kuhlthau모델(1991)에서처럼 변호사의 경우도 법률정보추구 중간단계에서 적합한 법률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일종의 혼란, 좌절, 의구심 등의 상황에서 후속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한 것이다. 〈표 10〉에서 보듯이, 변호사들은 첫째로는 검색어를 변경하여 다시 온라인 검색을 시도하는 행위를 가장

〈표 8〉 법률정보 검색행태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탐색	탐색	탐색	탐색	탐색	탐색	탐색
2위	체인잉	서베이	체인잉	브라우징	체인잉	체인잉	체인잉
3위	서베이	체인잉	브라우징, 모니터링	체인잉, 서베이, 모니터링	브라우징	서베이	브라우징
4위	브라우징	브라우징	-	-	서베이	브라우징	서베이
5위	모니터링	모니터링	서베이	-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표 9〉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접근점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중요단어
2위	법령명	법령명, 판례번호	법령명	법령명	판례번호	법령명	법령명
3위	판례번호	-	판례번호	판례번호	법령명	판례번호	판례번호

〈표 10〉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실패 후 검색 방식

순위	변호사의 소속기관			변호사의 경력			전체
	소형	대형	사내소속	1-5년	6-10년	11-15년	
1위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검색어 변경 후 다시 검색
2위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다른 DB로 이동
3위	동료와 의견 교환	브라우저	브라우저, 동료와 의견 교환	동료와 의견 교환	브라우저	동료와 의견 교환	브라우저, 동료와 의견 교환
4위	브라우저	동료와 의견 교환	-	브라우저	동료와 의견 교환	브라우저	-
5위	그냥 검색 끝냄	그냥 검색 끝냄	그냥 검색 끝냄	그냥 검색 끝냄	그냥 검색 끝냄	그냥 검색 끝냄	그냥 검색 끝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여 기존 검색어로 다시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방법으로도 여전히 적합한 검색결과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브라우징 방식을 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의 특징 중 하나는 변호사들이 이전 설문에서는 주된 정보채널로 선택하지 않았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즉 동료나 선후배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는 방식을 온라인 검색 실패 후에 비로소 상당수 변호사가 선택한다는 점이다. 즉 앞서 선후배 및 동료를 통한 비공식 정보는 오늘날 변호사들에게는 선호되지 않는 정보채널로 분석되었으나, 온라인 상 첫 번째 정보 검색이 실패한 이후에는 오히려 공식 정보가 아닌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보다 적합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정보 검색이 실패한 이후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는 점은, 앞서 선배나 동료 변호사와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추구하려는 정보요구가 존재한다는 점과 함께 오늘날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있어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의미가

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2.5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사항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호사들의 만족여부를 조사하였다. 11명의 변호사는 '보통'으로, 10명은 '만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매우 만족'이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의사표시를 한 변호사는 없었다. 그러나 중복응답을 허용한 개선점 제시 설문에서는 21명의 변호사 전원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1명의 변호사는 3개 이상의 항목을 개선점으로 표시하였고 많게는 5개를 개선 사항으로 표시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들 개선점을 선택 빈도수로 순위화한 결과가 〈표 11〉이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힌 사항은 바로 하급심 판례의 검색 확대였다. 이는 로앤비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용자 모두가 제시한 개선 희망 사항이었다. 이어서 변호사들은 법률 각 조항이 입법 취지나 관련 판례, 관련 용어정의 등 연관된 정보들과 함께 검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구조화된 질문 외에 구조화되지 않은 열린 질문을 통하여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

<표 11>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점

순위	개선점
1위	하급심 판례가 전부 검색되었으면 좋겠다.
2위	법령조항마다 법률 제정·개정 시의 입법취지가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3위	법령조항마다 관련 판례나 용어 정의 등 참고내용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4위	둘 이상 단어 검색이나 결과 내 재검색 등 상세검색이 원활했으면 좋겠다.
5위	판결이 상급심과 하급심 판결과 함께 3단으로 제공되면 좋겠다.
6위	검색 단계가 복잡하지 않고 클릭수가 많이 않았으면 좋겠다.

<표 12>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 희망사항

답변자	개선 희망 사항
1	대법원이나 국가 기관에서 판례·논문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전문을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다.
2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법령, 판결, 논문, 주석서 등이 통합 검색되었으면 좋겠다.
3	논문을 함께 검색하고 본문 내용도 볼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 내용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서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
4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급심 판례 공개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5	최신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어렵다.
6	판례번호(사건번호)가 확인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보를 입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률서비스가 어렵다.
7	하급심 판례가 전부 검색되지 않아 불편하다. 각 판례 검색 뿐 아니라 각 사건에서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도 검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8	대부분의 법률DB의 경우 1차 검색 이후 '결과 내 재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9	하급심 판례 공개가 절실하며, 주요 법령 제정·개정 시에 제정·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 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국가기관에서 발간해주면 좋겠다.
10	무료로 제공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최신 판례 등 다양한 판례를 더 많이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11	로앤비에서는 외국 판례나 법령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시 법률안의 입법 취지, 개정 취지 등을 명확하게 검색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13	법률가를 상대로 한 정보 검색 방법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어서의 개선 희망 사항을 개진해달라는 요청에는 과반수가 넘는 변호사가 다양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하급심 판례 제공 확대와 보다 자세한 법령 제정·개정 시 입법 취지 제공, 논문 검색 확대, 외국 판례 제공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변호사가 정보요구자인 동시에 정보이용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무에서

의 실제적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역시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하급심 판례의 공개 확대'였다(<표 12> 참조). 이는 변호사의 직업적 업무 특성 상 주요 업무 중에서도 소송, 즉 송무가 가장 순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선 필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행태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와는 달리 오늘날은 급속한 인터넷 발전으로 온라인 전자정보자원의 구축·제공·이용이 활성화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가 현재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행태 변화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이용자로서의 변호사 정보요구를 변호사 실무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최근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변호사의 경험(경력)과 로펌규모를 변수로 고려하여 소형 로펌, 대형 로펌, 일반 회사로 나누어 각각 7명의 소속 변호사, 총 2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개별 인터뷰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 연구에서 변호사의 정보요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일정 요인과 변수는 오늘날 한국의 변호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요인과 변수 측면이 아닌 정보추구행태의 특성 측면에서는 급격한 디지털 정보환경의 발전으로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선행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변

호사의 행태 특성 중 일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문성 추구와 1차 검색 실패 후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이용이라는 정보요구가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의 '업무 역할'(Leckie et al., 1996) 및 '업무 성격'(Otake, 1999)은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변호사들도 정보추구행태 특성상 여전히 Leckie 등의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uhlthau & Tama(2001) 등이 언급한 '변호사의 경험 또는 경력' 역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변화시키는 변수로 여전히 작용했는데, 경력이 긴 변호사들은 경력이 짧은 변호사에 비해 자신이 소장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Wilkinson(2001) 등이 언급한 '로펌 규모'도 선행 연구에서처럼 오늘날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소속 기관 자료실 이용에 있어서 소속 자료실을 두는 경우가 적은 소형 로펌 변호사에 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소속 기관 자료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넷째, Otake(1999)는 서면 형태의 문헌자료나 동료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비공식 정보를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번 연구 결과 오히려 오늘날 한국의 변호사들은 정보 콘텐츠에 있어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얻는 비공식 정보보다 법률·판례 등 공식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정보채널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자정보자원 형태의 정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호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채널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정보 요구와 더불어 검색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개선점으로 제시되었다. 즉, 변호사들은 보다 많은 하급심 판례가 검색되기를 원했으며 그 외 상세한 법령 제정·개정 시의 입법 취지 및 입법논의 내용이 공개되어 검색되길 원했다. 이에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변호사의 업무 성격별 또는 소속 기관별로 요구되는 각각에 맞는 정보수요를 고려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각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별로 자신의 정보요구에 맞게 정보자원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변호사는 탐색, 체인링, 브라우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색행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결과 내 재검색'이 보다 편리해지고 링크기능도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브라우징 항목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이용자가 쉽게 훑어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검색접근점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령 검색에 있어서 정보 제공의 최소 단위를 지금의 '법률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조(條) 단위'도 함께 제공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입법 취지 등이 법률단위로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연혁 정보 축적을 통하여 조단위에서도 제공됨으로써 각 조마다 제정·개정의 입법취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공되고 관련 판례, 관련 2차적 법률정보가 함께 주어진다면 법률이용자인 변호사들이 각 조항별 입법취지 등을 파악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본다.

넷째,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소형 로펌의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들이 다른 유료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무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특히 개선되기를 희망한 대로, 검색 가능한 하급심 판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개선되어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때, 이를 이용하는 정보요구자이자 정보이용자인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각각의 정보요구에 맞게 보다 편리하게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광진 (1997). 법조인의 법률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나원, 박지홍 (2009). 의사들의 의료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435-449.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3.435>
- 김민규 (2013).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이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숙 (2010).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정보탐색과정 연구: 쿨타우(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모형을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황우 (201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배은주 (2012). 인지적 업무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영·경제 분야 연구자의 정보추구행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지은 (1999). 법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주민지 (2013).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미순 (2007).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도서관, 62(2), 25-53.
- 한승희, 이지연 (2006).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별 탐색행태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년도 제13회 학술대회 논문집, 17-22.
- 홍기선 (2008). 의사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3-50.
- Berring, R. C., & Edinger, E. A. (1999). Finding the law. West Publishing Co.
- Case, D. O. (2012).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Cole, C., & Kuhlthau, C. (2000).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eking of novice versus expert lawyers: How experts add value. Th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1.
- Ellis, D. (1989). A behavioral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Documentation, 45(3), 171-212.
- Ellis, D., & Haugan, M. (1997). Modelling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engineers and research scientist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53(4), 384-403.
- Kuhlthau, C. C.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 Kuhlthau, C. C., & Tama, S. L. (2001). Information search process of lawyers: A call for 'JUST FOR ME'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Documentation*, 57(1), 25-43.
- Leckie, G. J., Pettigrew, K. E., & Sylvain, C.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66(2), 161-193.
- Makri, S. (2009). A study of lawyers' information behaviour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wo methods for evaluating electronic resources. Doctoral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 Makri, S., Blandford, A., & Cox, A. L. (2008). Investigating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academic lawyers: From Ellis's model to design.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4(2), 613-634.
- Otike, J. (1999). The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habits of lawyers in England: A pilot stud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31(1), 19-39.
- Otike, J., & Matthews, G. (2000). Legal information needs of lawyers in Kenya: A case study. *Library Management*, 21(5), 241-252.
- Sutton, S. A. (1994). The role of attorney mental models of law in case relevance determination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3), 186-200.
- Wilkinson, M. A. (2001). Information sources used by lawyers in problem-solving: An empirical exploratio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 257-276.
- Wilson, T. D.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 Wilson, T. D.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Informing Science*, 3(2), 49-55.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 Eun Ju (2012). A study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n CWA model: Researcher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of public organizatio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Choi, Misoon (2007). A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legal professionals. *The Library*, 62(2), 25-53. National Library of Korea.
- Han, Seung Hee, & Lee, Jee Yeon (2006). Searching behavior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based on their information needs. *The Proceedings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in 2006*, 17-22.

- Hong, Ki-Sun (2008). A study on information need and use behavior of docto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33-50.
- Jang, Jee-Eun (1999). A study o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law libraria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Ju, Minji (2013).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law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im, Hwang Woo (2012).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law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Jung Suk (2010). A studying law school students' information search process related to schoolwork: Based on Kuhlthau's information search proc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Kwang Jin (1997). A study on the user behavior of legal information by legal practition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Min Gyu (2013). A study on information use attitudes of legal information service us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Na-Won, & Park, Ji-Hong (2009). Exploring medical doctors' medic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435-449.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3.435>